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8(화) 총 3매(본문2, 참고1)	
국토교통부	도로관리과	답 당 자	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정종선 • ☎ (044) 201-3912, 3920	
한국건설 기술연구원	도로관리 통합센터	답 당 자	• 수석연구원 장진환, 박상규, 연구위원 김승현 • ☎ (031) 910-0684	
한국도로 협회	도로교통 연구실	답 당 자	• 실장 윤재용, 과장 김보성, 대리 류지은 • ☎ (02)3490-1078, 1035, 1044	
보 도 일 시		2020년 9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8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로 관리, '드론'으로 안전·효율성 높인다.

- 전국 도로 시설물안전 점검용 드론 72대, 본격 활용 -

- 앞으로, 도로 교량 및 비탈면 등의 시설물 점검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도로관리용 드론을 투입 한다.



드론 활용 비탈면 점검



드론 활용 교량 점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달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을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, 현장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자 교육을 완료하고, 이번달중 드론을 실전배치한다고 밝혔다.
- 그간, 도로시설물 점검시 관리자들은 직접 비탈면이나 교량에 접근하여 목측을 통해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문제와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.
- 이에따라, 국토교통부는 국산 드론 72대를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하는 한편, 운용매뉴얼을 마련하고,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 드론영상 등 디지털자료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.
 - 우선 이번달에 고속도로, 일반국도 등에 대해 장마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추계 도로정비에서 비탈면 점검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,
 - 향후 도로포장관리, 준공검사 등 활용분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 방안은 무궁무진한 만큼, 향후 SOC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하고 고도화된 도로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전진 사무관(☎ 044-201-39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도로비탈면, 교량 등 도로시설물 취약구간 점검
- 관리자 접근 불가능, 위험지역에 대한 영상촬영을 통해 시설물 상태 점검
- 영상 촬영을 통한 도로시설물 점검이력(상태) DB화 및 시계열 분석 가능